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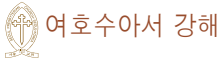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 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평화를 위하여 I

(여호수아 22:1 ~34)

이종윤 원로목사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후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애매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나 직업 군인이 아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군대를 즉시 해산시키고 귀환 조치했다. 자기들 기업의 땅으로 보내되 보수를 주어 보냈다. 22장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즉 요단 동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들을 해산하되 권면하고 그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23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 고별설교를 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가 있다.

I. 평안할 때에도

여호수아서 후반부의 주제는 전쟁 때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듯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한다. 이스라엘은 7년 간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정복적이었다. 아간의 범죄로 초기에 아이 성에서 패전했고, 기브온에게 속아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대부분 7년 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전쟁에선 이겼으나 평화를 잃은 적도 가끔 있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인처럼 행할 때 하나님의 손이 무섭게 나타난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그 땅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특별설교를 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모세가 명한 것과 여호수아가 명한 것을 다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했다(2, 3절).

둘째, 약속하신 땅과 거기서 평화를 누릴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22장 5절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인 첫째 되는 계명을 반복한 것이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같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를 꼭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에 그에게 감정적 표현은 없었다. 그러나 7년 전쟁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피로 맺은 동맹군을 이별하는 그 순간 어찌 그가 이지적 표현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서로가 생명의 은인으로서 헤어지는 그 시간은 감동 어린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요단강 동편으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보내고 이제는 서편의 가나안 땅에 다른 지파들을 각각 파송하려 할 때 여호수아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을 것이다.

II. 요단 강가에 세워진 단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큰 단을 쌓았다(수22: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갔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하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라 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 여호수아의 감동적인 고별사를 들었다. 그들은 긴 전쟁으로 지쳤으며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단 동편으로 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잘못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자 해체했던 부대를 다시 조직하고 전투를 준비했다. 이들은 주전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전쟁이라면 모두 머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자기의 형제들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간다고 했을 때 노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형제요 친구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재무장을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까? 그들은 전쟁을 싫어했지만 동쪽으로 간 형제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것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재무장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였던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한다. 진리의 영역에는 타협이 없다. 하나님께 그들이 적대 행위를 하였다면 형제간이지만 눈물을 머금고라도 전쟁을 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섭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하면 안 된다.

III.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러나 전쟁은 즉시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동편으로 간 족속들에게 진군하는 행진을 하기 전 그 상황을 먼저 조사하기로 하고 대표단을 파송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외심과 형제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1.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에서 파송된 대표들은 동으로 간 이들의 주관심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알아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판단함으로써 중요한 일을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매우 신중히 행동했다. 이들 대표단은 각 지파에서 나온 10명으로 구성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휘하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여호와와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브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22:16 - 18)

그들은 형제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인지 아니면 신앙인지를 조사했다.



- 2018 사명자 대회 - 진군 시작하다

10. 7(주) ~ 11. 25(주) (50일간) 주간 자율기도자 567명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2018년 사명자대회가 지난주 발대식을 시작으로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간의 진군을 시작하였다.

기도·말씀·전도 운동인 사명자대회가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무너진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설립된 서울교회는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며 달려왔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로 서울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는 2018 사명자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이번주 자율 기도자는 총 567명이 참석하였다.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3:11)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

여성 안내위원 동절기 안내복 구입

교회는 지난 10월 10일 정기당회에서 동절기를 맞아 예배위원회(위원장 : 최광성 장로)는 여성 안내위원들의 동절기 안내복을 구입하기로 결의 하였다.

기도 제목

첫째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 : 은혜의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셋째 : 우리에게 주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주신 성령님. 복음에 빛난 자로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제 나 이만큼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성삼위 하나님께 바치게 하소서.

넷째 : 자비와 공의의 보혜사 성령님 서울교회가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소서.

다섯째 : 임위하신 심판 주 하나님 주님 발앞에 엎드려 비옵나니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날, 어린양의 피를 이마에 바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판단하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성도들이 찬양하게 하소서.

여섯째 :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교인 식사 준비용 대형 전기밥솥 구입

매 주일 성도들의 식사 준비로 바쁜 일손을 돕고자 교회는 대형 전기 밥솥을 장만하기로 하였다. 매 주일 식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권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동건·신소영 박한옥 구진영 오후근 신문식·전희정
전용순 오효근 이민호 신은미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2019년도 봉사지원서

10월 21일(주) 까지 작성 / 사무국에 제출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교구일꾼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로, 교사, 찬양대원으로, 식사봉사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2019년 교회 봉사지원서를 받는다.

지난 주 주보에 삽지로 들어간 『2019년도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10월 21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2018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부서별) : 11월 4일(주일)
본선 : 11월 17일(토) 오후 1시
하박국 전장(1~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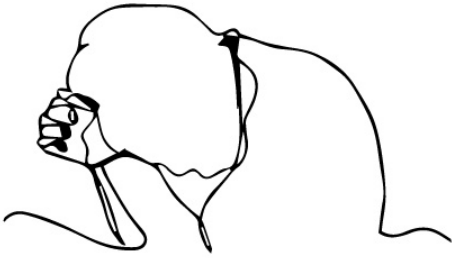
2018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 일 시: 11월 4일(주)
 - * 암송범위: 하박국 전장(1-3장) 단, 미취학 교육1국은 하박국 3장
 - * 신 청 :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 - 김혜언 집사
일반 장년 성도 - 사무국
2.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 일 시: 11월 17일(토) 오후 1시
3. 시상 및 발표 : 11월 18일(주일) 찬양예배시



자녀를 위한 기도회

자녀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김연화 집사 (1교구)

가을날 찬바람이 불 때 수험생을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갈급한 심정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라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3 수험생 어머니가 되어 보니 오직 주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의 동역자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저는 연초에 고등부 기도모임을 찾게 되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서 주일날 협소한 장소로 인하여 기도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다행히 뜻을 함께한 어머니 몇 분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모임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서로 나누며 눈물로 중보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한 자녀 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며 교회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끈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기도의 어머니이신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수험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힘을 내고 있음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기간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 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모임은 매주 목요일 교회 1층 102호(도서실)에서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수험생 어머니들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유·초등부는 성탄절 준비를 위한 연합 찬양 연습을 시작했어요. 작은 입으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찬양대 간식으로 오징어 김치부침개를 준비해서 나왔어요. 찬양도 즐겁고 간식은 맛있었어요.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명자의 기도- 교회를 위하여

너, 서울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김찬진 권사 (권사회 회장)

몸 되신 교회가 아픈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 개의 녹슨 못이 두 손과 발에 팡팡 두들겨 박힐 때의
아픔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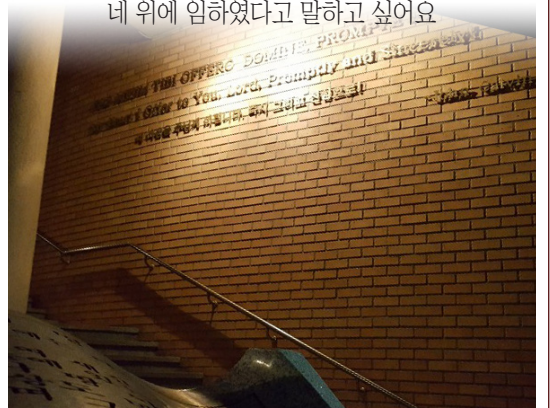
아직도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싶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 하였나이다의 기도가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향한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라합,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다니엘...
별과 같이, 모래같이,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라합의 밧줄, 예레미야의 밧줄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기가 막힐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몫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사랑이 있어요

너, 서울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이 시간에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문화의 기독교화

새로운 시작과 승화



세계적인 한지입체 작가인 전광영 집사님이 대규모 현대미술관 '뮤지엄 그라운드(Museum Ground)'를 설립했다.

지난 10월 6일(토)에 미술관 '뮤지엄 그라운드' 개관식이 있었다.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미술관은 2천 300평 대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옆에는 지상 4층 높이의 전광영 집사의 개인 스튜디오와 대규모 수장고가 들어섰다. 미술관의 전시공간은 3곳으로,

지하와 2전시실에서는 전광영 집사의 상설전이, 그리고 1, 3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현대미술품 전시가 열린다.

'뮤지엄 그라운드(Museum Ground)'의 개관전은 아르메니아 출신 벨기에 작가 장 보고시앙(Jean Boghossian)의 '심연의 불꽃'전이다. 그는 예술가를 후원하는 보고시앙재단 회장이자 세계적인 컬렉터이며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아르메니아 국가관 초



전광영 집사님과 개관전 작가 장 보고시앙(오른쪽)

대작가이다.

전광영 집사님은 "대한민국은 작가가 작업하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학연과 지연, 인맥이 없는 한 본선에 올라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이가 많다. 이 미술관을 통해 학벌, 지연, 인맥이 없어도 작품이 좋은 작가는 전시를 열어줘 미래에 큰 작가로 자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고 현대미술관 설립 취지를 위와 같이 밝혔다.

몇년전 순례자와의 인터뷰에서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화선교 사로서 세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셨던 전 집사님. 이제 전광영 집사님은 미술관을 열면서 작가이자 미술관 설립자로서, 후진양성을 위해서도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자연을 만끽하고 여유롭게 미술을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

유은경 집사(편집부)



동정



■ 연주회 : 김현정 집사(1부예배 오르가니스트) 「4대의 오르간으로 만나는 명작」 10월 18일(목)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 금주의 식사: 곤드레밥
김재중 집사 김유경 권사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8 사명자대회에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은혜의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불러주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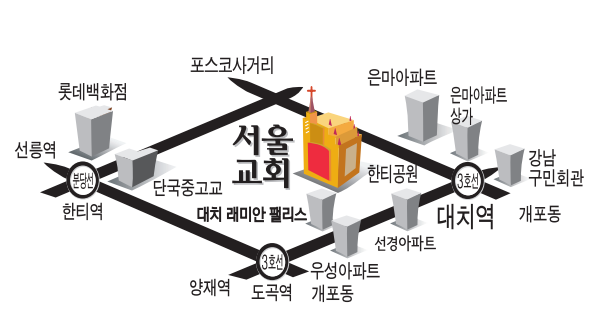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14일	주일	막 5-6		사 17-25	
10월15일	월	막 7:1-9:1		사 26-34	
10월16일	화	막 9:2-10:52		사 35-40	
10월17일	수	막 11-12		사 41-46	
10월18일	목	막 13:1-14:42		사 47-56	
10월19일	금	막 14:43-16:20		사 57-66	
10월20일	토	눅 1		렘 1-6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